

다산포럼

‘탈규제’·‘민영화’라는 뒷북치기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는 철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의료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여러 번이나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경쟁과 효율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기관을 영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를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미 그 단계인 어느 정도 겹친 뒷북치기 정책에 불과하다.

90년대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가 세계의 모델로 등극하면서 진행된 민영화 조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동부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 일본과 영국의 철도사고 등이 그것이다.

2010년 폭설로 영국의 관문 히드로 공항

이 3일 동안 마비되었을 때 영국 공항을 재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한 이 공항에는 여행객들이 편하게 앉을 의자도 사라졌고, 값비싼 식당과 매점만이 들어차 공항은 난리 북새통으로 거의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갔기 때문이다.

2012년, 아르헨티나는 과거 IMF 위기를 맞아 외국 자본에게 팔아넘겼던 석유회사 YPF를 재국유화하였다. 지난 9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국가개혁의 이름하에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화와 가스, 심지어 도로 보수에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하였다.

국가재무를 해소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국영부문을 독점자본의 거대한 사장터로 만들고, 공익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 영역을 민간기업에게 배타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신규투자를 기회하고, 서비스 가격을 마음대로 높여가는 등 횡포를 자행했다.

게다가 수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민경제를 탈국적화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었다. 특히 스페인계 REPSOL사가 최대 주주였던 YPF는 석유 생산보다는 선물거래에 치중하여 석유 생산량이 급감하여 급기야 아르헨티나는 석유를 수입하는 지경까지 갔다. 국가 경제의 근간

을 이루는 에너지산업까지 민영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주권 자체가 상실되었고, 독점이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효율성 향상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 장치산업을 인수한 사기업이 당장의 이윤과 무관한 장기 투자를 할 리가 없고, 수익 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여러 민자 고속도로처럼 이용자 부담도 크지만, 세금으로까지 외국 자본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 ‘민영화’, ‘탈규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민영화는 실제 국내외 독점기업의 공기업 인수, 즉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탈규제란 대체로 기업의 투자 및 이윤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 금융자본과 대기업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탈규제 만이 경제가 살길이 것처럼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세뇌시켰고, 정치권을 향해 집요한 보상을 해왔다.

각 나라 정부 역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부담이 되어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였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 임명 사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없어 노조와 약합하여 손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리고, 이익은

자신들만이 향유하는 일을 막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의 방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리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안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인 인프라, 공공 가치의 유지, 국민의 생활·건강과 직결된 부분의 민영화, 즉 독점 대기업 인수나 과도한 영리 추구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반드시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들 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익성에 있기 때문에 악간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문 경영인이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되,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노조, 전문가, 시민 대표를 이사진이나 지배구조에 참여시켜서 사회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당장 낙하산 인사를 거두고 전문 경영자가 재량껏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되, 공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은 영리 병원 도입 문제가 큰 논란거리다. 그나마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길이다. 대형병원의 고수익을 위해 가난한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일찍 죽어야 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NGO 칼럼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국민의 정치 불신 키운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심이 예사롭지 못해 과거에 비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자를 따라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사람들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요즘 정치상황을 보면서 전혀 가능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 당시 대우되었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 문제가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작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답답해 하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월이 가기 만을 기다리고 정당공천폐지 문제가 물 건 너가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가려운 곁을 짚어주고 있으니, 비록 지난해 전 당원 투표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이지만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대선 공약 등이 잊혀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더구나 호남지역의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경우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지역폐권주의에 의한 민주당의 일당지배체제가 사실상 독점해 온 지역인데다 요즘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차출론과 전략공천이다. 차출론이란 전략공천이든 민주당 내부의 문제라서 활가될부활 성질의 것은 아니

지만, 이런 모든 정치행위가 바로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운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차출론과 전략공천의 밭상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정부의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호주머니 속의 동전마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김총재가 밀었던 김보 후보가 허보에게 떨어졌던 기억을 되살리지 않더라도, 더 이상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지역폐권주의에 의한 지역민을 불모로 한 정치에 신물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새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비주의에 의한 호남에서의 기반구축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는 영호남으로 대별되는 지역폐권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치 일정과 목표가 분명해야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로포장된 자신들의 호남에서의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출론과 전략공천에 담긴 핵의 뜻지 않게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호주머니 속의 동전마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김총재가 밀었던 김보 후보가 허보에게 떨어졌던 기억을 되살리지 않더라도, 더 이상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지역폐권주의에 의한 지역민을 불모로 한 정치에 신물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새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비주의에 의한 호남에서의 기반구축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는 영호남으로 대별되는 지역폐권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치 일정과 목표가 분명해야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도 과거의 일방적 경험으로 인해 굳어진 사고와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아노 건반이 각자의 음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운 선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찌면 ‘성공의 뒷’에 걸려 아침만 왕성해진 것 같다.

혹자는 관료주의에 젖은 학교장이 많다고 들한다. 심지어는 시어머니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귀에 거슬리지만 교장이라는 직책만 갖고 있을 뿐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한 구지같이 아니겠는가? 학교교육은 꼭 2%가 부족하곤 하는데, 그 2%는 학교장의 능력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노력하여 98%를 이루는데 2%가 부족하여 틈실한 결실을 못 맺는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 거창하지도 않다. 꽤 2%의 역할은 해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 내 자신이 참 민망한 존재였던 것 같다. 신학기엔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교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만 원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원하면서 같이 가기 위해, 끝 날이 달도록 장도리 질을 하고 있다.

또 다시 헛별이 유리창을 인색하게 두드린다. 하지만 생각이 여과된 탓인지 가위 따스하다.

어느 신출내기 교장의 단상(斷想)

문종민
풍암중학교장

방학으로 학생들이 떠나간 학교는 차라리 적막하다. 텅 빈 운동장이 그렇고 이우성이 사라진 복도가 그렇다. 죽 둘러 쳐진 아파트의 창문들은 감시자의 눈처럼 교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파트에 가려 있던 태양이 절금질胡同을 보낼라치면 주뼛. 고개를 내밀어 해바라기 된다. 태양은 금방 다시 젖빛의 시멘트 뒤로 숨어버린다. 그 뒤 안엔 우리 아이들이 감히 소리도 못 지르고 사고의 기초체력을 기울 채이 아닌 학원교재를 짚어지고 경망하고 있을 것만 같다.

처음 교장으로 근무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채 버리지 못한 것들을 가다마다 주리는 중에 스스로 소스라친다. 내 가슴과 머릿속의 둑은 때가 아직도 도통 떨어져 나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곁과 장도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어떻게 새로운 생각이 비집을 틈이 있었을 것이며 남의 의견을 받

아들일 공간이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승진할 생각 없이 그저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칠 뿐이지만 일부는 학교를 훌륭하게 경영해 보고자 승진의 꿈을 꾸는 부재기위 불위소능(不爲所能)이라 했던가? 학교장이 되어 자신이 바라는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싶어 직위가 필요했으리라.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학교장의 경영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 능력에 따라 학교가 다양한 빛깔로 변하고 음색과 음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장은 어떤 인격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천착한다.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매사에 공평함은 물론, 좋은 말투에 책임감까지 갖췄다면 소통은 물론 어떤 갈등이나 갈등률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급만 기다려 주고 다독이면서 결핍을 누리는 지혜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으로부터의 최고의 바람은 자발성이다. 이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강제로도 끌지어낼 수 없다. 단지 선생님들이 즐기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학교장이 생각을 바꾸면 덤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정형(定型)에 얹매여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부임 인사와는 달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만 달달했던 것 같다. 위로가 되겠다던 약속은 허위였지만 하다.

이제는 학생님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 내 자신이 참 민망한 존재였던 것 같다. 신학기엔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교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만 원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원하면서 같이 가기 위해, 끝 날이 달도록 장도리 질을 하고 있다.

또 다시 헛별이 유리창을 인색하게 두드린다. 하지만 생각이 여과된 탓인지 가위 따스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오락가락 교육행정, 교육감 선거용 아닌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선 학교에서 요구한 전국단위 연합평가 확대를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성적 위주 교육을 지양한다’면서 4차례 실시했던 연합평가를 2차례로 줄었다가 이번에 3차례로 늘린 것이다. 이는 성적 하락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교육감이 실력보다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일선 학교에서 학력 제고는 숙명이며, 이를 위해 학교장에게 대폭 재량권을 줘야 한다. 연합평가 확대뿐만 아니라 자율학습 규제도 원화해야 한다.

그렇게 고집했던 연합평가 횟수를 늘린 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거용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시교육청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直시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광주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부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본분을 잊은 채 ‘상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부터 무인 택배 통합시스템 업체의 지원을 받아 보관함 72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 기사를 가장한 범죄 예방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배 수취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전까지 수취인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맡아주었지만, 보관함 설치 이후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25cm의 보관함에는 부피가 큰 과일박스나 기타란 웃길이, 선풍기 같은 물건을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배 수취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전까지 수취인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맡아주었지만, 보관함 설치 이후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25cm의 보관함에는 부피가 큰 과일박스나 기타란 웃길이, 선풍기 같은 물건을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배 수취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전까지 수취인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맡아주었지만, 보관함 설치 이후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25cm의 보관함에는 부피가 큰 과일박스나 기타란 웃길이, 선풍기 같은 물건을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배 수취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전까지 수취인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맡아주었지만, 보관함 설치 이후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25cm의 보관함에는 부피가 큰 과일박스나 기타란 웃길이, 선풍기 같은 물건을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배 수취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전까지 수취인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맡아주었지만, 보관함 설치 이후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25cm의 보관함에는 부피가 큰 과일박스나 기타란 웃길이, 선풍기 같은 물건을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택